

상위 제약사 실적 부진 이유 분석해봤더니...

R&D 등 미래투자로 수익 악화

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 등 R&D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하락 4·4분기 실적 전망도 ‘먹구름’ 실적보단 임상결과에 주목해야

상위 제약사들의 3·4분기 크게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다. 외형은 대체로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래 가치를 위해 현재 수익성을 희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월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3·4분기 수익성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업계 1위인 유한양행은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유한양행은 지난 7~9월 375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고를 올렸다. 다만, 영업이익이 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감했고, 순이익은 38억원에 그치며 1년 만에 75% 줄어 들었다.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제한으로 외형성장 부진한데다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용이 증가하며

수익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3·4분기 유한양행의 R&D 비용은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같은 기간, GC녹십자도 부진했다. GC녹십자는 지난 3·4분기 전년 대비 소폭(1.1%) 감소한 35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280억원)과 순이익(158억원)은 모두 전년 대비 33%, 44% 감소했다. 수익성이 높은 품목인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의 경쟁 심화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의 공급 지연 영향으로 내수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R&D 비용은 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 늘어나며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종근당은 지난 3·4분기 234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대비 7%의 외형성장을 나타냈다. 반면, 영업이익은 210억원, 당기순이익은 135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11%, 18% 가량 각각 줄어 들었다.

한미약품은 연결회계 기준으로 3·4분기 전년대비 3.4% 늘어난 매출액 235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대비 23% 가량 줄었고, 순이익은 94억원으로 59% 감소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3·4분기 발생한 일회성 수익 요인(임상 진행에 따라 파트

너사가 일시적으로 지급한 마일스톤)으로, 이번 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4분기 연구개발(R&D)에는 409억원을 투자했다. 매출액의 17.4%를 차지하는 규모다.

동아에스티(ST) 역시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이 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줄어 들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45% 줄어든 61억원으로 부진했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7.1% 늘어난 191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하며 수익성이 줄어들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4·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외형 증가가 크지 않은 가운데 R&D와 인건비 등 투자비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등 상위사의 경우 4·4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만, R&D 비용 증가는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실적보다는 내년부터 나타날 임상결과 발표나 승인 결과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아제약 ‘국토대장정’

대학생 국토대장정, 평양땅 밟을까

동아제약 남북 민화협 연대서 논의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남북 국토를 종단하는 날이 머지않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제약은 3일부터 1박 2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서 민간 교류의 하나로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논의 주제로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동 행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것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대표 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300명의 방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를 넓히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학생 국토대장정 논의는 청년 부문에서 남북 대학생 교류 증진의 하나

로 그동안 남한 영토만 걸어왔던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남북 대학생이 함께 한반도를 걷는 진정한 의미의 국토대장정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단에 포함됐다.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는 “대학생 국토대장정을 20년이 넘게 해오면서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를 걷는 진정한 한반도 대장정을 꿈꾸어 왔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감회가 새롭다”며, “국토대장정은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배우는 활동으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화합과 통일의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26만 6662명이 지원했으며, 3001명이 참가했다. 참가대원들이 그동안 걸었던 누적 거리는 1만 2031km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약 400km)을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세경 기자

임상3상 끝난 의약품들, 생산실적은 ‘0’

3년간 총 23개 의약품 시판허가 ‘허가 전 수요·공급계획 정비’

제약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3상을 조건으로 급하게 개발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아놓고 정작 제품 생산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2015~2017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및 생산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총 23개 의약품이 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거나 현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판 후 3상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식약처가 시판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개 품목, 2016년 8개 품목, 2017년 3개 품목이 3상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위급을 다루는 환자를 위해 급하게 허가받은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23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1개(47.8%)는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125mg, 250mg, 1000mg), 로스미르, 리아백스주, 입랜스캡슐(75mg, 125mg), 자이카디아캡슐(150mg) 등이었다.

특히 자이텔릭정(100mg, 150mg)은 생산실적이 전무한 데다 제품화를 지진 취소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환자 치료 때문에 신속 허가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인데, 제약회사가 허가받고도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며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 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흠앤쇼핑 김장철 맞아 11일까지 ‘김장大戰’

흠앤쇼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포함한 ‘김장대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매일 300개 한정 특가로 판매하는 팥 끝 해남 산지직송 절임배추(20kg)는 90일 이상 재배한 속 노란 배추만을 엄선한 제품으로 20kg 판매가 기준 3만6900원에 판매한다. 흠앤쇼핑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10%할인, 10%적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약 2만90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중 도드람 한돈 보쌈세트(최종혜택가 3만1500원, 2kg)와 해남 꿀고구마(최종혜택가 3만3000원, 10kg), 고춧가루(최종혜택가 7만6000원, 3kg), 천일염(최종혜택가 1만



3000원, 20kg), 강순의 포기김치(최종혜택가 3만1000원, 6kg), 김장 매트(1만원), 김치냉장고(53만2000원, 153리터) 등도 대폭 할인 판매한다

절임배추 예약은 모바일 흠앤쇼핑이나 흠앤쇼핑 앱의 기획전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배송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김승호 기자

이화의료원-이화여대 의과대

이화 메디테크 포럼 성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이화여대 의과대학이 31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 메디 테크 포럼(Ewha Medi-Tech Forum)을 개최했다.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소, 첨단의료 기술 관련 개발 기업 등 국내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세경 기자

유진로봇-KT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선포

유진로봇은 KT와 손잡고 자사의 로봇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에 KT의 인공지능(AI) 인터페이스 기가지니를 탑재한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 (사진)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청소 시작과 종료, 충전 뿐만 아니라 주행 상태, 배터리 잔량 확인, 모터 강도 및 청소 패턴의 변경, 문턱 모드, 카펫 모드 설정 등 경쟁 제품군 중 가장 많은 8가지 음성 명령을 지원한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의 기가지니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집 안에서 간단한 음성명령 만으로 별도의 리모콘 조작 없이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청소 시작과 중지, 충전 등 기본적인 음성명령뿐 아니라 세분화된 명령도 인식이 가능하

다. 가령 ‘지니아, 로봇청소기 시작’과 같은 짧은 음성명령도 가능하며 ‘로봇청소기 카펫 모드 설정해줘’ 혹은 ‘로봇청소기 약으로 설정해줘’ 등의 세분화된 명령어로 청소 강도 조절이나 옵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또 유진로봇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신제품 ‘아이클레보 O5’의 B LDC 모터와 넓은 흡입구를 통한 초강력 파워 흡입력 뿐만 아니라 ‘기가지니 홈 IoT’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실시간 지도 그리기와 청소 명령 및 청소 상태 확인, 청소 예약 등 핵심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KT샵과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56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 취임

김승철 이대여성암병원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사진)가 지난 10월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부인종양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김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세경 기자